



진미석
1일 - 3

#성남시청소년재단_신입직원_과제발표
#harsh_screening(가혹한 검증)의 시대

<신입직원 수습기간 프로젝트 발표>
어제(11월 20일) 오후에는 지난 9월 1일자 임용된
신입직원 20명들의 수습기간 마지막 관문인 수행한
프로젝트를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9월 1일에 임용된 그들은 인적성검사, NCS, 면접 등
여러 관문을 거치고 수습대일의 경쟁을 뚫어야 했다.
5분간의 짧은 발표시간에 자신이 한 일들과, 함께 도와준
부서의 팀원들의 노력을 담으려 하니, 무척 힘들어
보인다.

약 10주정도 되는 기간동안에 많은 성장을 한 것을 볼 수
있었고, 선배들의 일차 멘토링과 지지가 한눈에
느껴졌다. 방역상황이라 발표자와 몇몇 심사자와
있었고, 다른 사람들은 각자의 공간에서 자기부서
신입직원을 열띠게 응원하였다.

보석같은 아이디어와 실천방안들이 많이 나왔고, 바로
전면실시해도 손색이 없을 것 같았다. 신입직원들의
노력에 감사하고, 적극적으로 도와준 선배직원들도
감사하다. (참, 뜨끈뜨끈한 조직이다. 우리
성남시청소년재단은!)

...

신입들의 아이디어들과 기량을 보고 독려했다고
흐뭇하던 마음이 갑자기 싸한 순간이 있었다. 우리가
harsh screening을 하고 있구나 싶어서, 잠마켓이
열어볼다 보니, 일자리 가진 기관에서 지원자들을
갈수록 더 엄격한 잣대로 검증하고 여러관문을 통과하게
하고 있다는 말이다. (불현듯, 지난주, 면접다녀와서
새하얗게 질린 아들 얼굴 보면서 괜히 잔하면서 어찌나
화가 나던지. 어떻게 키운 아이들인데 하면서... 하던
마음이 오버랩되면서)

정말, 노력해주신 우리 신입직원 모두 감사드리고, 귀한
사람으로 키워주시고 보내주신 직원들 가족들께도
감사드리는 마음이 뽕뽕!!
또한, 감사한 만큼, 직무에서나 인성으로서나
신입직원들이 더 큰 성장을 이뤄갈 수 있도록 조직 역시
많은 노력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해본다!
성남시청소년재단, 화이팅!

